



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하락,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국내은행의 바젤 II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14.17%로 6월 말 14.4% 대비 0.23%p 하락하였고, Tier1 비율도 6월 말(11.61%) 대비 0.16%p 하락한 11.45%를 나타냄.
- 2011년 3/4분기 중 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2/4분기 5조 5,000억 원에서 3/4분기 2조 4,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대출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45조 1,00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9월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금감원은 2011년 7월 뱅커스지 기준 세계 20대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평균이 14.69%인 것을 감안하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4.17%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함.
- 또한,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2010년 6월 말 이후로는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함.

〈그림 1〉 BIS자기자본비율 및 Tier1 비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.

● 한편, 9월 말 기준 모든 은행이 현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 10%, Tier1 비율 7%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그러나 금감원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 시장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

● 특히, 2013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양적·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힘.

(9월 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, 금감원, 11/28)